

## 핀란드 도서관 견학

글 | 남 영 숙

한국교원대학교도서관 관장  
ysnam@knue.ac.kr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78차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중 가장 의미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다양한 도서관 방문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다. 헬싱키에 도착한 다음날 국립도서관 공식 방문에서부터 대회 마지막날에 이어진 헬싱키 인근의 대학 및 시립도서관 등을 선택하여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핀란드 도서관의 발전된 모습을 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오랜 유학생생활과 출장 및 여행 등으로 유럽의 구석구석을 많이 다녔으나, 도서관을 중점적으로 견학하기는 처음이었다. 핀란드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일제 하의 36년보다 더 오랜 기간을 스웨덴과 러시아로부터 통치를 받아온 국가였기에 핀란드 도서관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의 편견은 도서관을 방문할수록 깨어지고, 그들만의 독특한 도서관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에 감동받았다. 도서관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은 핀란드의 문화를 탄탄하게 하고 더욱 빛나게 하였다고 본다.

### 핀란드국립도서관

8월 11일 토요일 오전, 시차 적응도 잊은 채 첫 번째로 방문한 핀란드국립도서관은 헬싱키대학교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가장 오래된 학술도서관이다. 헬싱키 루터교회와 시티센터 캠퍼스(City Center Campus) 옆에 위치한,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명하다.

이 도서관은 국가 유산을 보호하고 모든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보존, 정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역 도서관들의 중심적 역할과 협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 이외 문화복합기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15~20회 콘서트를 개최하고, 시낭송회, 저자초청강연회, 갤러리 공간을 활용한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핀란드국립도서관의 사서로부터 국립도서관의 역사와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본래의 국립도서관은 1640년 핀란드 수도였던 투르쿠시에 헬싱키대학교의 전신인 투르쿠 아카데미가 설립되면서 도서관을 건립하였으나, 1827년에 투르쿠시에 발생한 화재로 도서관은 소실되었다. 화재로 핀란드 수도가 헬싱키로 이전되면서 새 도서관을 건립하게 된 것이 현재 국립도서관이다. 신고전주의 양식의 국립도서관은 독일 출신인 건축가 Karl Ludwig Engel이 1836년에 설계하여 1845년에 완공했다고 한다. 도서관 중앙의 윗부분을 돔형식으로 설계하여 자연채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안내자의 설명에 따르면,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자연채광을 통하여 글을 읽을 수 있는 시간까지만 도서관을 개방하였다고 한다.

특별전시실에서는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년~1546년)와 미카엘 아그리콜라(Mikael Agricola, 1510년~1557년)가 번역한 성경 필사본 등이 전시되고 있었다. 문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핀란드어는 1548년 투르쿠(Turku)의 주교였던 아그리콜라가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독일어, 스웨덴어, 라틴어를 바탕으로 하여 1642년에는 핀란드어로 번역하면서 최초로 문자화되었다.<sup>1)</sup>

핀란드의 1인당 도서관 이용횟수(연 12회)와 독서량(20권)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핀란드 도서관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핀란드는 유럽국가 중 예술분야에 공적 지원(Public Fund)이 가장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핀란드인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은 창의적인 핀란드 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도서관 역할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 파실라시립도서관

8월 15일 오후 세션별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 전시컨벤션센터 앞에 자리잡고 있는 헬싱키의 대표적 공공도서관인 파실라(Pasila)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축복이었던 것 같다. 필자만을 위한 가이드가 1시간 30분 동

1) 유럽 근대 초기의 종교개혁자. 프로테스탄티즘의 창시자인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후 핀란드는 1593년에 스웨덴과 함께 루터교를 국교로 채택하였다. 그 영향으로 핀란드의 종교 분포는 루터(Luther)복음교(88%), 정교(1%), 기타 종교(1%) 등이다.(Wikipedia)



▲ 파실라공공도서관

안 친절하게 도서관을 안내해 주었고, 그 아름다운 도서관을 홀로 만끽할 수 있었던 것도 커다란 축복이었다. 33개의 헬싱키 공공도서관의 중추 역할을 하는 파실라도서관은 세계의 어느 도서관에서도 보지 못한 실내 건축물 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누가 분수를 도서관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랴. 도서관 중앙에는 원형의 인공연못과 작은 물방울 들이 솟아오르는 작은 분수가 툭툭거리고 있었다. 국립도서관의 전통적인 도서관 건축양식에서처럼 최신식 건물에도 원형 채광 지붕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그 주변의 식물들과 물, 그 주변에서 사람들 들은 책을 읽으며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 비이키도서관

핀란드에서의 도서관 탐방 중 가장 가슴 설레게 하였던 도서관은 실상 비이키(Viikki)도서관이었다. 제자들과 세계의 생태도시를 탐구하면서 비이키 생태주거단지를 알고 있던 터라 이 지역을 꼭 방문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핀란드로 왔었다. 핀란드도서관협회에서 제공한 탐방가능한 도서관 목록에서 비이키도서관 이름을 발견한 순

간 꼭 방문해야 하는 도서관으로 점찍고 있었다. 비이키 캠퍼스는 헬싱키대학교의 다섯 대학 캠퍼스 중 하나이며, 농업, 임업, 환경, 바이오와 과학의 중심지이다.

이 도서관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생태적 컨셉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1999년에 건축된 건물의 둥근 모양과 표면은 푸른 유리 재질의 에너지 보존 이중벽으로 된, 매우 현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둘째, 지붕을 통하여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도서관 곳곳에 이집트 정원, 일본정원 등 다양한 주제의 정원을 조성하여 도서관 유리 표면으로 인한 온도 상승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훌륭한 휴식 공간 및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기능과 컬렉션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같은 건물에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나란히 조성되어 있어서 두 도서관 시너지 혜택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과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자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행사와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괄목할 만한 것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이용자들의



▲ 비이키도서관

증가이다.

난 이 도서관에서 우리 도서관들이 지향하여야 하는 것들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환경위기와 에너지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도서관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할까?

### 헬싱키대학교 중앙도서관

세계도서관정보대회 마지막 날인 8월 17일에는 핀란드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가이드와 함께 도서관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30개 이상의 도서관들 중 선택할 수 있었는데 우리 학교의 제2 도서관 신축사업의 꿈을



▲ 헬싱키대학교 중앙도서관

갖고 있는 필자에게는 가장 좋은 모범 사례인 헬싱키대학교 중앙도서관 방문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중앙도서관은 시티센터 대학도서관으로 인문학부, 행동과학부, 법학부, 사회과학부, 신학부 등을 관장하게 될 신축도서관으로서 2020년까지 세계 최고의 종합연구도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에 착공하여 9월 3일 개관을 목표로 하여 마무리 작업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도서관을 개방, 안내해 주었다. 다양한 국가들에서 온 도서관장들과 함께 종종마다 안내를 받으면서 그 거대한 규모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여느 도서관들처럼 자연채광을 중요시한 건축양식과 아울러 이용자 개인의 특성을 배려한 책상과 의자 등의 디자인과 배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학습과 휴식 공간의 통합,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한 서가의 디자인 등 국고 보조와 민간 기부로 완성되어 가는 중앙도서관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핀란드의 도서관 탐방의 시사점을 짧게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 도서관이 통합도서관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비이키도서관처럼 대학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하며 발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통합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해 볼만하다고 본다. 특히 농촌 지역 대학의 경우, 시립도서관과 연계하여 유·초·중등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고, 선택적 도서관 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서관 모델 강구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식에서 피아니스트가 연주와 연주 중간에 한 말 중에 “핀란드는 밤이 길고 추워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도서관과 사우나여서 도서관이 발전되었다”는 말을 들으며 단지 유머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핀란드의 사우나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듯이 도서관이 매우 발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